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자녀의 글쓰기에 나타난 어휘 오류 분석 및 개선 방안

Analysis of Vocabulary Errors in the Writing of North Korean Defectors' Adolescent Children and Error Improvement Measures

남혜경*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작문 결과물에서 나타난 어휘 오류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해 어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교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명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글쓰기 자료를 수집해 Corder(1973)의 오류 분석 이론을 토대로 어휘 오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휘 오류의 3가지 하위 유형인 대치·누락·첨가 오류 중 대치 오류의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각 오류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어휘 오류의 발생 원인을 어휘 오류 유형별로 정리해 제시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어휘 오류 개선을 위한 교수 방안으로 다음의 3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교수자는 한국어 어휘력 증진을 위한 어휘 중심의 별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수자는 어휘 교육 과정에서 특정 어휘와 의미상 호응을 이루는 '어휘 묶음'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교보재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기관은 말하기보다 글쓰기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환경을 지속해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글쓰기, 어휘 오류, 어휘 오류 분석,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 차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글쓰기 자료의 어휘 오류 분석 결과
 5. 결론 및 제언

폭 늘어났다. 남북 관계 경색의 영향으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입국자 수는 13,952명으로 이전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전체 인원이 34,352명¹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수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 정착할 때 자녀와 동반 입국하거나 정착 후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룬 경우도 많은데, 이에 따라 이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도 정착지원사업의 중요 분야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은 한국 사회에 형성돼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도와 질서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기여한다.²

1. 서론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2025년 3월 말 기준 최근 현황에 따르면, 1998년 이전까지 북한이탈주민 입국자는 947명이었고, 2010년까지 그 수는 19,453명으로 대

* 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초빙강의교수

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최근 현황』, 통일부, 2025.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2 김윤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

특히, 이들 자녀에 대한 교육은 공산국가에서 탈주해 새로이 정착한 한국의 낮은 경제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이들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같은 민족적 뿌리를 갖고 있지만, 오랫동안의 국토 분단 상황 속에서 상호 간 교류가 원활치 않아 언어 사용에 있어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이들에게 있어 한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어떤 면에서는 마치 외국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³ 이러한 언어적 간극을 줄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별도의 한국어교육이 마련되어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이들 대상의 한국어교육이 내실 있게 수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있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토 분단에 따른 언어적 간극에 더해 정체성 혼란에서 빚어지는 언어의 내면화 갈등에 노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자녀들은 대개 국외에서 출생한 이후 한국에 입국한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한국에서의 현재 삶과 제3국에서의 과거 삶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⁴ 이들 청소년은 자신이 탈북민인지, 아니면 중국인, 러시아인 등의 제3국인인지, 현존하는 한국인인지에 대한 자문으로 혼란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문화적·사회적 소속감 부재를 느끼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언어인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 전념하기 힘든 악순환을 경험한다. 정체성 혼란은 새로운 언어 습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과거 삶 속에서 경험한 이질적 삶, 문화, 학문적인 배경이 언어 학습의 순탄한 적응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수많은 신조어, 외래어, 외국어, 한자어는 이들 청

소년이 한국어 어휘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데 많은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⁵ 북한이탈주민 자녀인 이들 청소년은 이처럼 여러 난점 속에 한국어 학습 과정을 이어오며 한국어 어휘 습득에 있어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어 어휘 구사 상황에서 오류 발생의 여지가 많다.

어휘 구사 시 발생하는 오류는 학습자가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지식의 습득을 통해 이러한 오류는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것이고, 학습자가 수정하는 오류가 많을수록 언어에 대한 의식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간 언어학자들을 중심으로 제2 언어 학습자에 대한 어휘 오류 분석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해 수행되어 왔다. 어휘 오류에 대한 분석 연구는 이처럼 실패한 언어의 발생 빈도, 본질, 원인, 결과를 탐색하는 과정으로서 학습자가 빈번히 발생시키는 오류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제2 언어 습득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⁶ 이런 이유로 본 연구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청소년 자녀에게 있어 제2 언어나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구사 능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어휘 오류 분석에 주목하게 되었다.

어휘 오류 분석을 핵심 연구 소재로 삼은 그간의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상황을 상정해 어휘 오류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능률적으로 외국어 어휘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용한 함의를 제공해 왔다. 주요 국내 연구에서는 베트남인, 중국인 등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 오류 분석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주요 국외 연구에서는 L2 상황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어휘 오류 분석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어휘 오류를 분석해 제시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

구», 『법과인권교육연구』 3(2),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0, 22쪽.

3 문은희·윤영, 「중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어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 함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4,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9, 115쪽.

4 조성희·김정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로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선행 과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5), 2021, 218쪽.

5 권순희,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이해」, 『새국어생활』 24(4), 국립국어원, 2014, 93쪽.

6 Sompong, M., *Error analysis*, 『Thammasat Review』 16(2), Thammasat University, 2013, p.110.

다. 이들 청소년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상황은 마치 외국어를 학습하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휘 오류 분석 연구도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작문에서 나타난 어휘 오류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해 어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교수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문제를 구체화해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청소년 자녀들이 한국어 작문을 할 때 주로 범하는 어휘 오류의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이들이 주로 범하는 어휘 오류의 양상을 살필 때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들이 어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학습 개선 방안은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어휘 오류의 개념 및 의미

‘어휘 오류’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의 정의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휘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이것은 ‘어떤 종류의 말을 간단한 설명을 붙여 순서대로 모아 적어 놓은 글’을 뜻한다.⁷ 하지만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어휘의 정의는 사전적 정의와는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대다수의 언어학자들은 어휘의 정의가 다차원적인 구성 개념(multidimensional construct)이라는 것에 대체로 동의한다. 이에 따라 어휘의 정의는 다소 복잡하게 개념화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효과적인 대화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단어들을 한데 모은 것’

으로 정의되지만, 좀 더 광의적으로는 ‘듣고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글을 읽고 이 글에 내포된 의미까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어들의 모음’으로 개념적 확장이 된다.⁸ 이를 토대해 본 연구에서는 어휘를 ‘사람들 간 효과적 소통을 위해 화맥이나 문맥의 의미 이해에 필요한 단어들의 모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어휘의 정의를 위와 같이 개념화했을 때, 이 어휘는 타인과 말로 소통을 하든, 글로 소통을 하든 이러한 다양한 소통 장면에서 표출하는 단어에 적합한 의미를 담는 것과 그 의미를 표출하는 적합한 형식을 취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어휘는 의미(concept)와 형식(form)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이에 따라 어휘를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은 화맥이나 문맥상 적합하지 않은 의미나 형식을 띠는 단어를 표출해 효과적이지 못한 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해 어휘 오류는 ‘단어의 의미나 형식이 맥락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거나 어휘량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¹⁰이라고 정의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휘 오류의 정의를 개념화할 때는 ‘오류’라는 것이 ‘실수’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학술적으로 오류라는 개념은 실수와 비교하여 정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오류를 성인 문법을 기준으로 무언가 잘못된 것, 즉 이탈의 형태(deviation)¹¹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이 개념에는 언어를 구사할 때 나타나는 일회성의 잘못을 의미하는 실수와 대조됨으로써 그 잘못이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견해

8 김애화·김은주·김의정, 「초등학생의 어휘 특성 연구: 반대말과 비슷한 말 검사를 통한 어휘 발달 패턴 및 오류 유형」, 『교과교육연구』 16(3), 이화여대 교과교육연구소, 2012, 800쪽.

9 김지민·신승용, 「어휘오류 분석의 문제점과 어휘오류 처치 방안 연구」, 『언어와 문화』 6(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0, 120쪽.

10 황신해·김민진,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휘오류에 대한 교사의 수정피드백과 업테이크 연구」, 『유아교육연구』 44(1), 한국유아교육학회, 2024, 150쪽.

11 Brown, H. D.,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0, pp.7~8.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국립국어원, 2010.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에 의할 때 오류는 일회성의 잘못된 실수와는 다르게 체계적이며 반복된다는 점에서 개념적 차별성을 띤다. 실수는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언어 학습 과정상 중요한 것도 아니기에 무시 가능한 것이지만, 오류는 체계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학습 과정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진다.¹² 이처럼 반복된 잘못이 계속될 때 발생하는 오류는 실수와는 다르게 체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오류와 실수는 L2 문법에서 봤을 때는 모두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류는 체계적인 잘못된 데 반해 실수는 비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지 비체계적인지는 언어능력 (linguistic competence)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오류를 범했을 경우 이것은 해당 학습자의 잘못된 언어능력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화자가 직접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는 데 반해, 실수는 언어를 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문제이므로 화자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했는지 안다면 직접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¹³ 오류와 실수의 이러한 개념적 차이, 그리고 선행연구자의 어휘 오류에 대한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연구는 어휘 오류를 ‘학습자가 언어 구사 시 어휘의 의미나 형식을 문맥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이같이 정의될 수 있는 어휘 오류는 학습자의 언어 구사 맥락에서 어휘 학습과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James(1998)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해 그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¹⁴

첫째, 어휘 오류는 상대방과 소통하는 장면에서 메시지 전달상의 문제를 발생시켜 원활한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 언어를 활용해 타인과 소통할 때는 발화자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효과적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는 메시지 전달상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이런 측면에서 어휘 오류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은 메시지 전달상 오류를 줄여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끄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것은 어휘 오류를 원활히 통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둘째, 학습자가 스스로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 특정 언어의 학습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학습자는 특정 언어를 학습할 때 어휘를 학습하는 데 가장 먼저 몰두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언어 학습은 어휘의 학습을 가장 기본적 토대로 해서 수행된다. 이처럼 학습자는 언어 학습에 임할 때 어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이를 가장 먼저 학습하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어휘 오류 발생을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언어 학습의 성과를 높이는 필요조건이 된다.

셋째, 특정 언어 학습자 집단에서 어휘 오류는 다양한 종류의 언어적 오류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에 속한다. 언어의 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오류로 문법 오류를 드는 학자들이 많긴 하지만, 문법은 특정 언어의 구성 및 운용상 규칙으로서 대체로 정형화된 틀 속에 실재하는 것이어서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어휘 오류에 비해서는 적은 경향을 보인다. 이와 달리 어휘는 어떤 언어이든 문법과 같은 정형화된 틀이 별로 갖춰져 있지 않아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어휘 오류는 발생 가능성이 큰 언어적 오류이기 때문에 특정 언어 학습 시 의도적으로 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다양한 종류의 언어적 오류들 중에서 어휘 오류는 특히 원어민과의 소통에 있어 더 큰 지장을 초래하고 짜증을 유발하는 등 소통 장애의 주요인이 되는 오류이다. 이것은 특히 L2 상황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학습자가 원어민과 소통 시 어휘 오류를 범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¹² Sompong, M., op. cit., p.116.

¹³ Florianus, C. C., & Syamsi, V, "Error analysis of inflectional affixation in academic writing of freshman students", *LLT Journal: A Journal on Language and Language Teaching* 24(2), 2021, pp.471~472.

¹⁴ James, C, *Errors in language learning and use: Exploring error analysis*, New York: Longman, 1998, pp.57~63.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된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의 경우, 올바른 어휘를 구사하는 상대방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영어 학습자에게 있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어휘 오류는 소통 장애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L2 상황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어휘 오류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그간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휘와 문법 간 경계가 불명확해 어휘 오류의 문제가 문법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어휘 오류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어휘 오류와 문법 오류는 학술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독립적 개념들이지만, 언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두 오류는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러한 언어 활용의 실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언어의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어휘 오류를 분간하고, 이러한 체계적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구조화된 어휘 오류 방지 학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 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 오류의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학습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어휘 오류는 언어 학습의 측면에서 중요한 여러 의의를 지니고 있고, 어휘 오류를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이러한 의의를 기반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구사 장면에서 발생하는 어휘 오류에 주목해 이를 핵심 연구 소재로 삼았다.

2.2. 어휘 오류 분석의 가설

오류는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가 언어 학습 및 활용 중 해당 외국어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에 기인해 발생하는 필연적 과정이다.¹⁵ 이같이 특정 언어 구사 중에 발생하

는 오류는 비단 외국어 학습자에게만 한정된 문제라 할 수 없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청소년 자녀들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과정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사안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은 여러 개별적 사정으로 인해 기존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북한 말이 아닌, 한국 지역에서 통용되는 한국어를 새로이 사용하게 된다. 그 결과 이들 청소년에게는 한국어 구사 중에 문법 오류에 비해 어휘 오류를 범하는 상황이 더 자주 목격된다. 이를 교정하여 이들 청소년이 올바른 어휘 구사를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타당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객관적 근거 도출을 위해 ‘오류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오류 분석은 일회적 실수와 확연히 구분되는,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의 발생 사례를 분석 자료로 수집한 후 그 발생 빈도 분석을 토대로 난이도를 추정하고 관련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⁶ 이렇게 오류 분석은 언어학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반복되는 오류의 개선을 위한 타당한 방안을 제안하는 과학적 수단이 된다.

어휘에 대한 오류 분석은 ‘오류 분석 이론(Error Analysis Theory)’을 논리적 기반으로 삼는다. 이 오류 분석 이론은 ‘오류 분석 가설(Error Analysis Hypothesis)’에 기초해 정립된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가설은 오류를 부정적인 학습 결과물로 여기지 않고 학습 과정 중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가설은 제2언어의 학습자에게 있어 발생하는 오류가 목표 언어 자체, 사용된 의사소통 전략, 제2언어 교육의 유형 및 질과 같은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복잡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¹⁷ 오류 분석 가설이 오늘날 주목도가 높은 이유는 언어 구사 중에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수집한 후, 이를 조직적으로 분석 및 분

acquisition, London: Longman, 1974, p.158~171.

¹⁶ Mukarromah, M., & Suryanto, B. T., “Error analysis on students’ writing in using simple present tense in descriptive 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Education and Linguistics (JoEEL)* 3(2), University of Nurul Jadid, 2022, p.74.

¹⁷ Sompong, M., op. cit., pp.116~117.

¹⁵ Corder, S. P., “Idiosyncratic dialects and error analysis”, In Jack C. Richards (Ed.), *Error analysis: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류하여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밝혀내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¹⁸ 이와 달리 과거에는 언어 구사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좀 더 색다르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존재했는데, 그 대표적 관점에는 ‘대조 분석 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과 ‘중간 언어 가설(Interlanguage Hypothesis)’이 있다. 이 중 대조 분석 가설은 구조언어학이나 행동주의에 근거한 이론적 접근인데, 이 가설은 모국어와 외국어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해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오류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언어 학습 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간 언어 가설은 외국어 학습 시 모국어도 아니고 외국어도 아닌, 이들 언어의 중간 지점에 존재하는 제3의 언어로 학습자가 그간 구축해 온 지식에 외국어의 구조를 추가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대조 분석 가설은 1960년대 외국어 학자 대부분이 받아들인 가설이었으나, 이 가설은 제2 외국어의 학습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이 모국어와의 차이점에서 비롯된다는 부정적 전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¹⁹ 이 가설이 제기된 이후 영어를 학습하는 스페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이들 아동이 범한 85%에 달하는 오류 중 부정적 전이에 기인한 오류는 단지 3%에 불과한 것이 밝혀졌다.²⁰ 이러한 관련 연구가 속속들이 보고되면서 대조 분석 가설은 이론적·실제적 측면 모두에서 지지 기반을 잃게 되었다.

중간 언어 가설은 1970년대 Selinker(1972)²¹에 의해 최

초 제안된 오류에 관한 가설인데, 그가 제시한 ‘중간 언어’의 개념은 학습자가 역동적 학습 과정에서 만들어 내는 나름의 언어 체계라 할 수 있다. 이 중간 언어는 자연어(natural languages)로 가정되는 것으로서 모국어로부터의 전이, 과잉된 규칙의 일반화, 교실에서의 단체 학습상의 폐해 등의 이유로 인해 발생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가설이 제시된 후 당대의 여러 학자는 단순히 오류의 분석 및 정정을 뛰어넘어 학습자의 언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은 오류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고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데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²² 그 결과 이 가설은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해결에 있어 효과적 대처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

이와 같은 비판 속에 오류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폐지하고 대두된 대안적 관점이 오류 분석 가설인 것이다. 오류 분석 가설은 오류를 언어 학습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대조 분석 가설과 맥을 같이하지만, 이를 부정적인 결과물로 보지 않고 더욱 효과적 학습 성과의 창출을 위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중간 결과물로 본다는 점에서 대조 분석 가설과는 다른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오류 분석 가설은 오류가 언어 학습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간 언어 가설과 맥을 같이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간 언어 가설과는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청소년 자녀들이 한국어 구사 과정에서 범하는 어휘 오류를 오류 분석 가설의 기본적 관점을 준용해 이해하고자 했다.

Linguistics 10, De Gruyter, 1972.

18 Li, Y., "Error analysis of college English writing based on the cohesion and coherence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14(2), Canadian Center of Science and Education, 2024, p.73.

19 Perkins, K., & Zhang, L. J., "The effect of first language transfer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learning: From contrastive analysis to contemporary neuroimaging", *RELC Journal* 55(1), SAGE Publications, 2024, p.163.

20 Dulay, H. C., & Burt, M. K., "Errors and strategies in chil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8(2), 1974, Wiley-Blackwell, pp.129~136.

21 Selinker, L.,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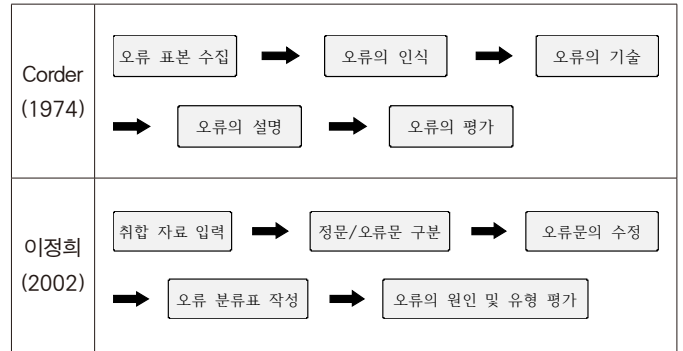
22 Guo, Q., "Interlanguage and its implication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Pacific International Journal* 5(4), RCLSS, 2022, pp.8~9.

2.3. 어휘 오류 분석의 유형 및 단계

어휘 오류 분석의 유형은 어휘 오류를 구분하는 3가지 유형에 기초해 세부적 구분이 가능하다. 즉, 어휘 오류는 보편적으로 볼 때 대치, 첨가, 누락의 3가지 유형²³으로 세분되므로, 어휘 오류를 분석할 때도 이 3가지 유형에 맞춰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초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를 분석한 이정희(2003)²⁴도 어휘 오류의 유형을 크게 대치, 누락, 첨가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대치는 좀 더 세분화되는데, 표기 오류, 의미적 오류, 통사적 오류, 표현 오류, 의사소통 전략 오류의 5가지 세부 유형이 있다. 표기 오류는 발음이나 철자상에 나타난 오류이고, 의미적 오류는 과잉 일반화, 과잉 구체화, 유의어, 비적합 어휘를 통해 발생하는 의미 전달상의 오류이다. 또한 통사적 오류는 문법적 조합어, 피동이나 사동의 표현, 대명사나 존대법 표현 등 표현 내용상의 완결성이 미흡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고, 표현 오류는 문맥 간의 호응이나 연어나 구어, 관용적 표현과 관련해 발생하는 오류이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전략 오류는 풀어쓰기나 한자어, 합성어 사용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전략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치는 이같이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 가능하다. 또한 어휘의 누락은 문장의 전체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필요 어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빠뜨린 경우로 개념화하였고, 이와 반대로 어휘의 첨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어휘를 덧붙여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개념화하였다. 어휘 오류 분석을 실시한 다양한 국내외 연구들²⁵에서 이러한 3가지 오류 분류 유형

에 기초해 오류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오류 분석의 체계성과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오류 분석의 단계를 제시한 국내외 대표 학자로 Corder(1974)²⁶와 이정희(2002)²⁷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이 제시한 오류 분석의 단계를 각각 도식화해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오류 분석의 단계

<그림 1>에서 보듯이 Corder(1974)²⁸는 오류 분석의 단계를 크게 5단계로 구분했는데, 각 단계별 세부 수행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오류 표본 수집’ 단계에서는 오류 분석에 활용할 학습자의 언어 표본을 설정하고, 이 표본을 수집하는 구체적 방법을 강구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류의 인식’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상 어떤 오류가 발생해 있는지, 목표어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각각의 오류를 파악한다. 이때 목표어의 여러 표현들 중 어떤 표현을 표준으로 간주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오류의 기술’ 단계에서는 목표어와 비교해 학습자의 오류 표현을 재구성해 올바른 표현과 비교·구분할 수 있도록 병렬 기술해 나타낸다. 그다음 네 번째 ‘오류의 설명’ 단계에서는 오류 분석을 통해 파악한 오류가 어떤 이유로 오류로 평가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마지막 단계인 ‘오류의 평가’ 단계에서는 언어 학습상 발생한 오류를 총체적

Publication, 2012.

²⁶ Corder, S. P., op. cit..

²⁷ 이정희, 앞의 논문.

²⁸ Corder, S. P., op. cit..

²³ Corder, S. P., op. cit., p.163.

²⁴ 이정희,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2003, 301~320쪽.

²⁵ 김순일, 「베트남인의 한국어 오류 양상 연구: 어휘와 문법을 중심으로」, 청주대 박사학위논문, 2019; 노병호, 「중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 어휘 오류를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5), 한국융합학회, 2015; Hazarika, K., “Error analysis: An essential tool for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64(6), ELTAI, 2022; Heydari, P., & Bagheri, M. S., “Error analysis: Sources of L2 learners’ errors”,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2(8), Academy

으로 평가하여 해당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한다.

이정희(2002)²⁹의 오류 분석 단계도 크게 5단계로 구분되긴 하나, Corder(1974)³⁰의 오류 분석 5단계와 그 내용상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취합 자료 입력’ 단계는 분석 자료를 수집해 일정한 분석 틀에 맞춰 재가공한 후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구축한다는 점에서 ‘오류 표본 수집’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다음 ‘정문/오류문 구분’ 단계는 분석 자료에서 목표어로 구성된 정문과 오류가 존재하는 오류문을 비교해 오류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오류의 인식’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다음 ‘오류문의 수정’ 단계는 오류문에서 확인된 오류를 목표어에 맞춰 모두 정문으로 수정한다는 점에서 ‘오류의 기술’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다음 ‘오류 분류표 작성’ 단계는 파악된 오류를 문법, 어휘, 음운, 기타 등으로 구분해 빈도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류표를 작성해 제시한다는 점에서 오류 발생 이유를 설명하는 ‘오류의 설명’ 단계와 약간 다르다. 마지막 단계인 ‘오류의 원인 및 유형 평가’ 단계는 ‘오류의 설명’과 ‘오류의 평가’를 통합한 단계로서 오류로 평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발생의 원인을 탐색해 제시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오류 분석의 단계는 이 두 연구자가 각각 제시한 단계별 명칭이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각 단계별 수행 내용을 살펴볼 때 새롭게 추가되거나 누락된 것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정희(2002)³¹는 오류 분석의 대상을 정문, 오류문과 같이 문장 단위로 더 넓혀 인식하였다는 점, 오류 분류표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좀 더 세밀한 오류 분석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만한 것은 이러한

오류 분석의 단계가 문법 오류나 음운 오류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주목하는 어휘 오류의 분석을 위한 체계적 절차로도 유용하다는 점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청소년들이다. 이들 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러시아 등지의 제3국에 거주할 때 낳아서 양육하다 한국에 부모와 함께 입국한 자녀들로서 ‘여명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여명학교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9월 설립된 사립학교로서 그간 졸업생 447명(2025년 3월 기준)을 배출했다. 여명학교는 현재 맞춤형 특성화 대안교육 과정으로 한국어교육을 비롯해 신앙·인성교육, 사회적응교육, 회복·치유교육 등 10가지 세부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³² 본 연구자는 이들 청소년의 한국어교육을 위해 여명학교에 출강하였는데, 이 학교에 재학하며 ‘24년도 겨울 학기 방과후학교’ 수업을 수강한 18명의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해당 학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상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개괄적 특성을 성, 연령, 한국어 구사 능력으로 구분해 제시하면, 먼저 성은 남학생이 13명(72.2%), 여학생이 5명(27.8%)이었다. 연령 분포는 17~23세였고, 한국어 구사 능력은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었다.

3.2. 분석 대상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여명학교에 재학 중 한국어 강의를 수강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인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 2월 21일에 실시한 한국어 시험 결과물을 분석 대상 자료

29 이정희, 앞의 논문.

30 Corder, S. P., op. cit.

31 이정희, 앞의 논문.

32 여명학교 홈페이지, <http://www.ymschool.org>[2025.8.15 검색]

로 삼았다. 해당 시험은 <표 1>과 같이 글쓰기 주제와 특정 조건을 제시한 후 언어사용능력, 내용구성능력, 과제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개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이었다. 아울러 이들 연구 대상 청소년들은 여명학교 재학생이고, 해당 시험은 50분간 실시되었으며, 강의자의 시험 감독 입회하에 공정히 실시되었다.

<표 1> 분석 대상 자료로 삼은 한국어 시험의 글쓰기 주제

구분	글쓰기 주제 및 조건
1번 문항	<p><조건>에 맞게 '인생에서 꼭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세요.</p>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가 인생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을 두 가지 이상 소개할 것 2.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각각 한 가지 이상 작성할 것 3. 8줄 이상 작성할 것
2번 문항	<p>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를 맺습니다. 그중에서도 '고마운 사람'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음 <조건>에 맞게 8줄 이상 글을 쓰세요.</p>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마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2. 고마운 사람과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3.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참고로 시험 결과물을 분석 대상 자료로 삼은 이유는 과제로 내어 준 결과물을 분석 대상 자료로 삼을 경우 학생의 한국어 구사 시 어휘 오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자가 한국어교육 강사로 재직하며 체험한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과제를 내어 줄 경우 수강 학생은 대화형 인공지능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 수단이나 지인 등의 인적 수단을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수강생의 한국어 글쓰기 능력을 온전히 파악하기 힘들 수 있고, 어휘 오류의 발생 가능성 또한 명확한 측정이 곤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수강생의 어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엄밀히 측정하기 위해 과제물 대신 시험 결과물을 분석 대상 자료로 삼았다. 이 분석 대상 자료의 규모는 문장의 총수가 243개이고, 어절의 총수는 1,792개이다.

3.3. 어휘 오류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자들이 어휘 오류를 분석하는데 활용한 기준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소 변경해 오류 분석의 틀을 <표 2>와 같이 정립하였다. 본 연구는 Corder(1974)³³가 오류의 유형으로 분류한 대치, 누락, 첨가를 기본적인 어휘 오류의 유형으로 보되, 본 연구의 대상이 외국어 학습자가 아니라 한국어와 유사한 북한 말을 사용해 온 북한이탈주민 자녀 청소년들인 점을 감안해 이에 적합한 어휘 오류 분류의 세부 기준을 정립해 <표 2>와 같이 구체화해 설정하였다.

<표 2> 어휘 오류 분석의 틀

오류 유형	오류 분류의 세부 기준
어휘의 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를 혼동해 어휘를 잘못 선택해 기술했을 때 - 관용어, 속담, 연어 등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였을 때 - 발음이나 철자가 유사한 어휘를 잘못 선택하였을 때 - 상황 또는 의미상 적절한 어휘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해 확대 적용한 부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였을 때 - 한국어 어휘를 조합해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는 새로운 어휘를 임의로 만들어 냈을 때 - 학습자가 주로 사용해 온 북한 말을 한국어로 번역해 사용하였을 때 - 학습자가 주로 사용해 온 북한 말이나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때
어휘의 누락	문장 전체의 의미 전달에 필요한 어휘를 적절히 기입하지 못하였을 때
어휘의 첨가	문장 전체의 의미를 고려할 때 불필요한 어휘를 덧붙여 사용하거나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3.4. 오류 분석의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오류 분석의 절차는 이정희³⁴와 김순일³⁵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글쓰기 오류 분석 시 활용한 절차를 준용하였다. 이 절차는 앞서 제2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Corder³⁶가 제안한 5단계의 절차 중 '오류 표본 수집' 단계 다음에 이어지는 4가지 단계인 오

33 Corder, S. P., op. cit..

34 이정희, 앞의 논문.

35 김순일, 앞의 논문.

36 Corder, S. P., op. cit..

류의 식별, 오류의 기술, 오류의 설명, 오류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가 이들 각 단계별로 적용한 세부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어휘 오류의 식별 단계에서는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어휘 오류를 분류하는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쓰기 표현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어휘 오류로 변별하였다.

두 번째 어휘 오류의 기술 단계에서는 어휘 오류로 식별된 쓰기 표현 사례를 <표 2>의 어휘 오류 분석의 틀에 명시된 3가지 오류 유형, 즉 대치, 누락, 첨가로 분류한 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목표어 표현을 병기하여 ‘오류 분석 코딩 파일’에 기록하였다.

세 번째 어휘 오류의 설명 단계에서는 어휘 오류로 식별된 쓰기 표현 사례가 어떤 이유로 인해 오류로 평가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메모하여 ‘오류 분석 코딩 파일’에 부기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어휘 오류의 평가 단계에서는 어휘 오류로 식별된 쓰기 표현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하는 질적 분석을 실시한 뒤에 그 원인 또한 ‘오류 분석 코딩 파일’에 부기를 하였다.

이상의 분석 절차에 따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본 연구자와 또 다른 박사학위자, 이렇게 2인이 사전에 제작한 ‘오류 분석 코딩 파일’을 활용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어휘 오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같이 연구 대상자가 구사하는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할 때는 객관성·체계성·일반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³⁷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 절차를 이론적 근거에 기초해 명확히 설정한 후 분석자 간에 사전 공유함으로써 객관성을 갖추고, 해당 절차를 일관성 있게 준수할 수 있도록 분석 유무를 구체화해 적용함으로써 체계성을 갖추고, 분석 결과가 Corder³⁸의 오류 분석 이론에 부합하도록 이론적 관련성을 확보함으

로써 일반성을 갖추고자 노력했다. 이와 함께 분석자별로 개별적 분석을 마친 다음 교차 검토를 통해 분석 결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했고, 분석 결과가 다른 경우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한 후 최종 분석 결과로 삼았다. 참고로 교차 검토 전 개별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상관계수(CR: coefficient of reliability)인 단순백분율합의지수는 0.905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는 위와 같은 4단계의 절차를 거치며 수행한 어휘 오류의 분석 결과를 Microsoft의 Excel Program ver. 2305를 이용해 정리하였고, 이를 명목척도로 변환 코딩한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4. 글쓰기 자료의 어휘 오류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청소년들이 여명 학교에 재학 중 치른 한국어 작문 시험의 결과물에 대한 어휘 오류의 유형별 분석 결과를 먼저 종합해 제시하였다. 그다음 각 오류 유형 중 세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어휘의 대치에 대한 각 세부 기준별 발생 빈도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 후, 이와 함께 대표적 오류 사례에 대한 발생 원인을 탐색하는 질적 분석 결과를 연이어 제시하였다. 그다음 어휘의 누락과 첨가의 경우에는 세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표적 오류 사례에 대한 발생 원인을 탐색하는 질적 분석 결과만을 차례대로 제시하였다.

4.1. 어휘 오류 유형별 분석 결과의 종합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청소년들로부터 수집한 글쓰기 분석 자료에 나타나는 어휘 오류를 어휘의 대치, 누락, 첨가의 3가지 유형에 따라 전체 문장 대비 오류율, 전체 어절 대비 오류율로 구분해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37 윤영민, 『미디어 내용분석 입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10쪽.

38 Corder, S. P., op. cit..

〈표 3〉 어휘 오류 유형별 분석 결과의 종합

오류 유형	문장의 어휘 오류			어절의 어휘 오류		
	문장 총수	오류 문장 수	문장 오류율	어절 총수	오류 어절 수	어절 오류율
어휘의 대치	243	58	23.9	1,792	508	28.3
어휘의 누락		25	10.3		235	13.1
어휘의 첨가		19	7.8		181	10.1
계	243	102	42.0	1,792	924	51.6

〈표 3〉의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휘 오류의 유형 중 어휘의 대치 오류 문장은 58개로 파악되어 문장 오류율이 전체 문장 총수 243개 대비 23.9%로 나타났다. 또한 어휘의 대치 오류 어절은 508개로 파악되어 어절 오류율이 전체 어절 총수 1,792개 대비 28.3%로 나타났다. 그다음 어휘의 누락 오류 문장은 25개로 파악되어 문장 오류율이 10.3%로 나타났고, 누락 오류 어절은 235개로 파악되어 어절 오류율이 13.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휘의 첨가 오류 문장은 19개로 파악되어 문장 오류율이 7.8%로 나타났고, 첨가 오류 어절은 181개로 파악되어 어절 오류율이 10.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문장에 대한 오류율은 42.0%였고, 전체 어절에 대한 오류율은 51.6%였다.

어휘 오류 유형별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어휘 오류는 문장 오류율이나 어절 오류율 모두 어휘의 대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다음은 어휘의 누락이었으며, 어휘의 첨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청소년들이 가장 빈번히 범하는 어휘 오류는 어휘를 부적절하게 대치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분석 결과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어휘 오류의 모든 유형에서 어절 오류율이 문장 오류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문장 안에 속해 있는 여러 어절에서 어휘 오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4.2. 대치 오류의 빈도 및 사례 분석

어휘의 대치 오류는 〈표 2〉의 분석 틀에서 알 수 있듯이 오류 분류의 세부 기준이 7가지로 분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세부 기준별 오류의 발생 빈도를 파악해 오류율과 함께 구분해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여기서 오류율은 어절을 기준으로 설정해 분석하였다.

〈표 4〉 대치 오류의 세부 기준별 오류율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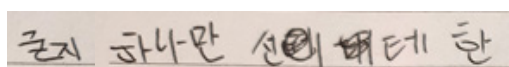
대치 오류 분류의 세부 기준	오류 어절 수	어절 오류율
의미 혼동으로 잘못된 어휘 선택 사례	108	21.3
관용어, 속담, 연어 등 관계에서 부적절 어휘 선택 사례	39	7.7
발음이나 철자가 유사한 잘못된 어휘 선택 사례	149	29.3
상황 또는 의미를 확대 적용한 부적절 어휘 선택 사례	130	25.6
보편적이지 않은 새로운 어휘를 임의로 만든 사례	58	11.4
북한 말을 한국어로 번역해 사용한 사례	16	3.1
북한 말이나 영어를 그대로 사용한 사례	8	1.6
계	508	100.0

〈표 4〉의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치 오류의 세부 기준에 따른 유형 중 ‘발음이나 철자가 유사한 어휘를 잘못 선택하였을 때’와 관련된 사례가 149개로 전체 대치 오류 어절 508개 대비 오류율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은 ‘상황 또는 의미상 적절한 어휘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해 확대 적용한 부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였을 때’와 관련된 사례가 130개로 오류율이 25.6%였고, ‘의미를 혼동해 어휘를 잘못 선택해 기술했을 때’와 관련된 사례가 108개로 오류율이 21.3%였다. 뒤이어 ‘한국어 어휘를 조합해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는 새로운 어휘를 임의로 만들어 냈을 때’와 관련된 사례가 58개로 오류율이 11.4%였고, ‘관용어, 속담, 연어 등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였을 때’와 관련된 사례가 39개로 오류율이 7.7%였다. ‘학습자가 주로 사용해 온 북한 말을 한국어로 번역해 사용하였을 때’와 관련된 사례는 16개로 오류율이 3.1%였고, ‘학습자가 주로 사용해 온

북한 말이나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때'와 관련된 사례는 8개로 오류율이 1.6%였다. 이같이 대치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는 발음이나 철자가 유사한 잘못된 어휘 선택, 상황 또는 의미를 확대 적용한 부적절 어휘 선택, 의미 혼동으로 잘못된 어휘 선택과 관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북한 말과 관련된 대치 오류는 그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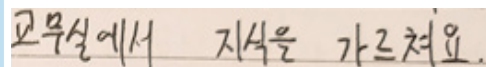
이에 따라 본 연구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청소년들이 어휘 사용 시 빈번히 오류를 범하는 대치 오류 사례로서 발음이나 철자가 유사한 잘못된 어휘 선택, 상황 또는 의미를 확대 적용한 부적절 어휘 선택, 의미 혼동으로 잘못된 어휘 선택의 3가지 유형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실시해 그 발생 원인 탐색 결과를 차례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바른 표현은 '진하게 기울여 쓴' 글로 정문에 표기하였고, 모든 사례 분석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먼저, 발음이나 철자가 유사한 잘못된 어휘 선택의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이다. <그림 2>는 발음이나 철자가 유사한 잘못된 어휘를 선택한 사례인데, 이 그림 상단의 오류문을 보면 '고집을 부려 구태여'라는 뜻을 가진 부사 '굳이'를 '굳지'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또한 그다음에 나오는 어휘인 '선택한'은 '선택한'을 발음에 따라 잘못 표기한 어휘 오류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발음이나 철자가 유사한 잘못된 어휘를 선택하는 이유는 구어 중심의 한국어 구사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동일 연령대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생과 비교할 때, 어휘의 바른 표기법을 학습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쓰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오류문	
정문	굳이 하나만 선택한

<그림 2> 대치 오류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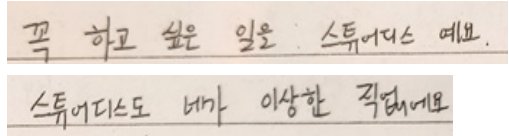
다음, 상황 또는 의미를 확대 적용한 부적절 어휘 선택의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이다. <그림 3>은 상황이나 의미를 감안할 때 부적절한 어휘를 선택한 사례인데, 이 그림 상단의 오류문 전단에 기술된 내용은 글쓴이가 공부를 싫어해 학교 선생님들이 다들 자신을 포기했음에도 역사 선생님이 유일하게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무실로 따로 불러 공부를 가르쳐 줬다는 내용이다. 이 상황에 맞춰 글을 구성하고자 할 때 '지식을 가르쳐요.'는 두 어절이 서로 의미 간 호응을 이루지 못하므로 부적절한 표현이 된다. 이 표현은 '지식'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그 후단에 '전해 줘요.'라는 표현을 쓰거나 '가르쳐요'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공부를 가르쳐 줘요.'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이처럼 상황 또는 의미를 확대 적용한 부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이유는 특정 어휘와 의미상 호응을 이루는 '어휘의 묶음'을 함께 습득하는 반복적 학습을 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오류문	
정문	교무실에서 지식을 전해 줘요. / 교무실에서 공부를 가르쳐 줘요.

<그림 3> 대치 오류 사례 2

마지막으로, 의미 혼동으로 잘못된 어휘를 선택한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이다. <그림 4>는 어휘의 의미를 혼동하여 잘못된 어휘를 선택한 사례인데, 이 그림 상단의 오류문을 보면 '이상한'이라는 어휘는 앞뒤 문맥을 감안할 때 '이상적인'이 더 적합한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이 오류문 전단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스튜어디스라는 내용을 기술하였으므로, 후단에는 이를 글쓴이 자신의 이상적인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이상한'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이상적인'이라는 적합한 단어와 의미를 혼동해서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의미 혼동으로 잘못된 어휘를 선택하는 이유는 문맥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 쓸 수 있는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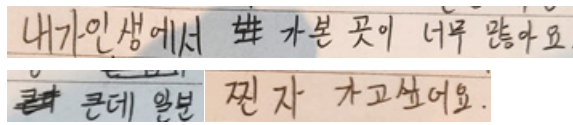
오류문	
정문	꼭 하고 싶은 일을(은) 스텐디스예요. 스텐디스도 내가(내가) 정 한 이상적인 직업이에요.

〈그림 4〉대치 오류 사례 3

4.3. 누락 오류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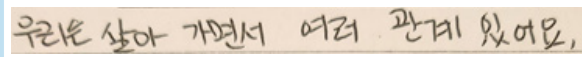
어휘의 누락 오류는 〈표 2〉의 분석 틀에서 알 수 있듯이 오류 분류의 세부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누락 오류의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그 발생 원인을 탐색해 질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누락 오류의 대표적 사례로 〈그림 5〉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 그림 상단의 오류문을 보면 ‘큰데(근데)’는 ‘그런데’의 준말로서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이끌어 나갈 때’ 사용이 가능한 접속 부사이다. 이 단어의 용법을 감안할 때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일본은 가본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지만, 이를 완전히 누락한 채 가고 싶다는 내용만 표현되어 있다. 이 오류문을 내용상 흐름의 문제가 없게 보완하려면 ‘일본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라는 어구를 추가해야 한다.

오류문	
정문	내가 인생에서 가 본 곳이 너무 많아요. 큰데(근데) 일본에는 가 본 적 이 없어서 핀자(진짜) 가고 싶어요.

〈그림 5〉누락 오류 사례 1

누락 오류의 또 다른 사례로 〈그림 6〉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 그림 상단의 오류문에 있는 ‘여러 관계 있어요.’라는 표현은 ‘여러 관계를 맺고 있어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오류문	
정문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림 6〉누락 오류 사례 2

〈그림 6〉의 사례에서 보듯이 ‘관계 있어요.’라는 표현의 두 어절 사이에는 ‘맺고’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누락 오류가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이 같은 누락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어 구사 환경에 익숙해 조사를 생략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시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거시적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자면 글쓰기를 완료한 뒤 앞뒤 문맥이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조화롭게 문맥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4.4. 첨가 오류 사례 분석

어휘의 첨가 오류 또한 〈표 2〉의 분석 틀에서 알 수 있듯이 오류 분류의 세부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첨가 오류의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그 발생 원인을 탐색해 질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첨가 오류의 대표적 사례로 〈그림 7〉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 그림 상단의 오류문을 보면 ‘더 조금’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이 표현에서 ‘더’라는 단어는 ‘특정 기준보다 그 정도가 이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조금’이라는 단어는 ‘적은 정도나 분량’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감안할 때 이 두 단어는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연이어 표현하면 부자연스러워진다. 이를 전체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표현하려면 ‘조금’이라는 단어를 생략하는 게 맞는데, 이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조금’이라는 단어를 부적절하게 첨가함으로써 매끄럽지 못한 글을 작성했다.

오류문	기분이 더 좋음 좋아요.
정문	기분이 더 좋아요.

〈그림 7〉 첨가 오류 사례 1

첨가 오류의 또 다른 사례로 〈그림 8〉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 그림 상단의 오류문을 보면 ‘매일 도’라는 표현이 보인다. 이 표현에서 ‘도’라는 단어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거나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고려했을 때 이 ‘도’라는 단어는 문맥상 부자연스러운 표현에 해당한다. 전체 문맥을 감안해 볼 때 ‘도’라는 단어는 부적절하게 첨가되어 있다.

오류문	매일 도 행복하고 건강하면 좋겠어요.
정문	매일 행복하고 건강하면 좋겠어요.

〈그림 8〉 누락 오류 사례 2

이상과 같이 첨가 오류가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이 같은 첨가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미시적으로 볼 때 글쓴이가 중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중국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매일 행복하고 건강하면 좋겠다.’라는 문장은 중국어로는 ‘每天都幸福又健康就好了’로 표현되는데, 이때 ‘都(dou 발음)’가 한국어 보조사 ‘도’와 발음상 유사해 이를 혼동해 부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 이유를 찾자면 글을 구성할 때 앞뒤 문맥을 고려해 글쓴이 자신의 작성 의도에 적합한 단어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정밀하게 조합하는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이

들의 작문 결과물에서 나타난 어휘 오류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해 어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교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오류 분석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오류 분석의 틀과 절차를 정립한 후, 여명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글쓰기 자료를 수집해 어휘 오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도출한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 오류 유형별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문장의 어휘 오류율은 42.0%로 나타났고, 3가지 오류 유형 중 어휘의 대치 오류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둘째, 어휘 오류 유형 중 대치 오류는 주로 발음이나 철자가 유사한 잘못된 어휘를 선택하거나 상황 또는 의미를 확대 적용한 부적절 어휘를 선택하거나 의미 혼동으로 잘못된 어휘를 선택하는 사례에 집중되었다. 아울러 대치 오류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 그 발생 원인은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쓰는 습관, 어휘의 묶음을 함께 습득하는 반복적 학습 기회의 부족, 문맥상 적절한 단어 선택을 위한 어휘력의 부족 등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어휘 오류 유형 중 누락 오류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 그 발생 원인은 구어 구사 환경에 익숙한 언어 습관이나 작문 시 문맥을 살피는 퇴고 습관의 부족, 그리고 문맥의 조화로운 형성을 판단할 능력의 부족 등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어휘 오류 유형 중 첨가 오류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 그 발생 원인은 출생지에서 익힌 제2 언어의 영향이나 글쓰기의 작성 의도에 적합한 단어의 취사선택 능력의 결여, 어휘를 정밀하게 조합하는 글쓰기 능력의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자녀가 한국어 구사 상황에서 어휘 오류 발생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어휘 오류 개선을 위한 교수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는 한국어 어휘력 신장을 위한 어휘 중심의 별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청소년 자녀가 한국어를 작문을 통해 구사하는 상황에서 어휘 오류가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낮은 수준의 어휘력에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어휘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현 교육은 주로 한국어의 종합적 응용 능력 향상에 교육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본적인 어휘력 학습 교육이 간과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이들의 어휘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휘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어휘력 신장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의 예시로서 한국어 초급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온 ‘날말 카드’를 변용해 이들 북한이탈주민의 청소년 자녀 대상의 ‘쉬운 날말 카드’를 활용도가 높은 한국어 날말 위주로 제작해 강의 시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교수자는 어휘 교육 시 특정 어휘와 의미상 호응을 이루는 ‘어휘 묶음’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교보재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어떤 언어든 어휘 구사의 유능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숙어, 속담 등과 같이 서로 호응을 잘 이루는 어휘들의 묶음을 통째로 반복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학습 효과성의 관점에 입각할 때 어휘의 효과적 학습을 위해 호응을 이루는 어휘의 묶음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 적용에 있어 어휘의 묶음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보재 개발은 미흡한 편이므로, 이를 적극 개발해 교육 현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요즘 주목도가 높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어휘 묶음 학습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또 다른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

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의 일종인 ‘ChatGPT’를 어휘 오류 수정 학습에 도입한 결과 유의한 교육 효과를 거두었다는 보고가 있다.³⁹ 이처럼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은 어휘 묶음을 학습하는 효과적인 교보재로서의 가능성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셋째, 교육기관은 말하기보다 글쓰기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환경을 지속해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자녀들은 한국어 용법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이는 한국어와 유사한 북한 말을 구어의 형태로 지속해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이 오히려 글쓰기 상황에서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어휘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글쓰기 기초가 탄탄할 때 말하기의 오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쓰기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해야만 할 것이다. 글쓰기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 글쓰기 동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글짓기 대회, 낭송 대회 등의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거나 교육 관련 주무를 맡고 있는 교육부나 통일부와 같은 정책 당국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정책적 중요성이 큰 교육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여명학교만 하더라도 사적 지원을 통해 제반 교육 경비를 조달해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에 상시적으로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를 중심

39 이광훈·구민지, 「챗GPT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기초 교양 쓰기 수업 사례 연구」, 『한국과 세계』 6(5), 한국국회학회, 2024, 593~621쪽.

으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자녀들이 한국어를 너넉한 재
정 속에 충분한 수준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인 청소년을 대상
으로 어휘 오류 분석 실시 결과, 오류 발생이 주로 어휘의
대치 오류에서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을 밝히고, 어휘 오류
의 하위 범주인 대치 오류, 누락 오류, 첨가 오류의 각 유형
별로 발생 원인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연구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기도 해서 이
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학교에 재학 중인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어휘 오류 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
를 북한이탈주민 자녀인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이
들 청소년을 다양하게 표집하여 글쓰기 자료를 수집한 뒤
어휘 오류 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대조
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더욱 정교한 어휘 오류 개
선 방안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어휘 오류 분석은 글쓰기 자료에 기초
해 실시한 것이므로, 본 연구 결과는 문맥상 발생하는 어
휘 오류에 한정된 분석 결과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청소년이 타인과 대화 중 범하
게 되는 화맥상의 어휘 오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010.
- 권순희,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이해」, 『새국어생활』 24(4), 국립국
어연구원, 2014.
- 김순일, 「베트남인의 한국어 오류 양상 연구: 어휘와 문법을 중심으로」, 청구대 박사
학위논문, 2019.
- 김애화·김은주·김의정, 「초등학생의 어휘 특성 연구: 반대말과 비슷말 검사를 통
한 어휘 발달 패턴 및 오류 유형」, 『교과교육학연구』 16(3), 이화여대 교과교
육연구소, 2012.
- 김윤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법과인
권교육연구』 3(2),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0.
- 김지민·신승용, 「어휘오류 분석의 문제점과 어휘오류 처치 방안 연구」, 『언어와 문
화』 6(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0.
- 노병호, 「중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 어휘 오류를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5), 한국융합학회, 2015.
- 문은희·윤영, 「중국어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어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 합의
적 질적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4, 연세대 언
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9.
- 윤영민, 『미디어 내용분석 입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 이광훈·구민지, 「ChatGPT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기초 교양 쓰기 수업 사례 연구」,
『한국과 세계』 6(5), 한국국회학회, 2024.
- 이정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연구: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9(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 ,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2003.
- ,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오류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조성희·김정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로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선행과제」, 『한
국민간경비학회보』 20(5), 한국민간경비학회, 2021.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최근 현황』, 통일부, 2025.
- 황신해·김민진,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휘오류에 대한 교사의 수정피드백과 업데이
크 연구」, 『유아교육연구』 44(1), 한국유아교육학회, 2024.
- Brown, H. D.,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0.
- Corder, S. P., *Introducing applied 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
Education, 1973.
- Corder, S. P., "Idiosyncratic dialects and error analysis", In Jack C. Richards
(Ed.), *Error analysis: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ondon: Longman, 1974.
- Dulay, H. C., & Burt, M. K., "Errors and strategies in chil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8(2), 1974.
- Florianus, C. C., & Syamsi, V., "Error analysis of inflectional affixation in
academic writing of freshman students", *LLT Journal: A Journal on
Language and Language Teaching* 24(2), 2021.
- Guo, Q., "Interlanguage and its implication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Pacific International Journal* 5(4), 2022.
- Hazarika, K., "Error analysis: An essential tool for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64(6), 2022.
- Heydari, P., & Bagheri, M. S., "Error analysis: Sources of L2 learners' errors",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2(8), 2012.
- James, C., *Errors in language learning and use: Exploring error analysis*, New
York: Longman, 1998.
- Li, Y., "Error analysis of college English writing based on the cohesion and
coherence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14(2),

2024.

Mukarromah, M., & Suryanto, B. T., "Error analysis on students' writing in using simple present tense in descriptive 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Education and Linguistics* (IJoEEL) 3(2), 2022.

Perkins, K., & Zhang, L. J., "The effect of first language transfer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learning: From contrastive analysis to contemporary neuroimaging", *RELC Journal* 55(1), 2024.

Selinker, L.,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0, 1972.

Sompong, M., "Error analysis", *Thammasat Review* 16(2), 2013.

2. 기타 자료

여명학교 홈페이지, www.ymschool.org.

Abstract

Analysis of Vocabulary Errors in the Writing of North Korean Defectors' Adolescent Children and Error Improvement Measures

Nam, Hye-Kyung |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lexical errors in the writings of adolescent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proposes strategies to improve their vocabulary use. Writing samples from 18 students at Yeomyung School were examined using Corder's (1973) error analysis framework. Among substitution, omission, and addition errors, substitution was the most frequent.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ree teaching strategies: developing vocabulary-focused programs, designing materials that teach lexical collocations, and creating writing-centered learning environments to enhanc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Keywords writing, lexical errors, error analysis, North Korean defector adolescents